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의 수용도와 개정 방향*

엄익상**

目 录

1. 머리말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해외조사
3.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수용도 조사
4. 보완 사항
5. 개정 방향
6. 맺는말

1. 머리말

이 글은 현행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의 국내외 보급 및 수용도에 관한 최근 국가 유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 표준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현행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은 국내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정착 단계에 있으나, 민간부문 및 해외에서는 아직도 보급단계에 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의 국내외 수용도에 대한 조사가 정부 관련 기관의 의뢰로 최근에 진행되었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HY-2012-N). 이 논문의 일부 자료와 핵심 주장은 필자의 2009년 보고서와 2012년 저서의 관련 내용과 다소 중복된다.

** 한양대학교 중문과 교수

자의 30%만 현행 표기법(RR: Revised Korean Romanization System)을 사용하고 있고, 64%는 맥퀸-라이샤워표기법(MR: McCune-Reischauer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¹⁾ 이 조사는 지난 10여 년 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기법의 해외 보급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한글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훨씬 큰 규모로 로마자표기법의 영향 평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발음의 예측성, 인지도, 만족도, 수용도를 종합한 최종 종합 지표가 46.89%로 보고되었다. 이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지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50%에도 미달하므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논문은 두 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현행 표기법이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음성학적 측면에서 자음과 모음의 표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행 표기법의 가장 큰 문제로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는 로마자표기법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이 현행 표기법이 해외 도서관과 학계에 보급·정착되기는 불가능하다.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 규정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두 자음의 경우 유무성음 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중설 모음 ‘ㄱ’과 ‘-’의 현행 표기 eo와 eu가 현실음과 너무 차이가 나는 점도 개선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해외조사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9년 업익상에 의뢰하여 실시한 해외 실태 조사는 미주 63명, 유럽 26명, 아시아 23명, 기타 6명 등 총 118명의

1) 1984년부터 사용한 로마자표기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해외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현행 로마자표기법을 수정로마자표기법 (Revised Romanization)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도 이를 수용하여 현행 정부안을 RR로, 맥퀸-라이샤워법을 MR로 약칭한다.

해외 거주 한국 전문가를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는 한국을 연구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자, 사서, 문화인, 경제인 등 약 180명에게 배포되었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문 내용

Q1: 현재 사용 중인 체계는?

Q2: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체계는?

Q3: 선택 이유는?

Q4: 한국 정부가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체계는?

선택: A: MR B: RR C: Yale²⁾ D: 기타

2.1 미주 지역

미주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미주 지역 설문조사 결과

	Q1		Q2		Q4	
	명	%	명	%	명	%
MR	53	69.7	32	50.0	30	46.9
RR	17	22.4	23	35.9	22	34.4
Yale	4	5.3	3	4.7	2	3.1
기타	2	2.6	6	9.4	10	15.6
합계	76	100	64	100	64	100

2) 예일대학에서 개발한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으로 한글 전환이 용이하다. 단어의 음운 변화를 무시하고 한글 철자대로 적는 전자(transliteration) 체계로 언어학 논문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

위 결과는 미주 지역의 한국학 전문가들의 69.7%가 MR을 사용하고 있고, RR 사용자는 22.4%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편의성 면에서 MR의 선호도가 50%인 반면에 RR은 35.9%가 되어 두 체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채택했으면 하는 표기법에 대한 지지도도 MR 46.9% 대 RR 34.4%로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미주 지역을 현황을 종합 보고한 UCLA 한국학 교수인 버즈웰(Buswell 2011)은 지금은 MR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나 최근 RR의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RR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엄 2009:55-60)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0대 이상 북미의 한국학 전공 학자들, 도서관, 대학 출판사, 학술지 등은 모두 MR을 쓰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미의회도서관의 정책과 서로 연관이 있는데, 미의회도서관의 정책은 전공 학자, 출판사, 학술지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 도서관 사서들은 그들의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는 20-30대 대학원생이나 신진학자나 특히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RR의 선호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MR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국계 연구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RR의 규칙이 아포스트로피나 반달 모양의 부가기호를 사용하는 MR보다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에 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버즈웰은 이러한 경향은 점점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RR이 MR을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러나 버즈웰의 주장은 다분히 개인적인 체험과 관찰에 근거한 개인적 선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면대면 인터뷰에 응했던 UCLA 한국학연수소장 던컨(Duncan 2009. 8. 28)은 미국의 한국학 학자 대부분이 MR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자 간 세대 차이가 미국에서 양성된 한국학 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학과장인 킹(King 2009. 10. 10) 또한 북미에서 RR의 사용은 미미한 상태이고, MR의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RR이 MR보다 간단해 보이는 이유는 착시현상으로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 등의 세부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MR의 부가 기호는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여러 도서관의 목록 작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정책국장 틸렛(Tillett 2009. 11. 16)박사는 RR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MR을 사용할 것이라고 서면 인터뷰에서 답변하였다. 그는 한글을 MR로 전환시키는 데이터베이스까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다시 RR로 전환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중국어의 로마자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였다. 남가주대학(USC) 한국유산도서관의 사서 조이 김(Kim 2009. 11. 16. 전자 통신)은 RR의 치명적인 약점인 일관성 결여와 띄어쓰기 규정 미비로 인하여 도서관에서 채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상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미주 지역에서 MR의 사용법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일부 한국 관련 연구자들이 RR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학 학자들은 여전히 MR을 사용하고 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유럽지역

유럽 지역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유럽 지역 설문조사 결과

	Q1		Q2		Q4	
	명	%	명	%	명	%
MR	20	71.4	19	73.1	19	70.4
RR	6	21.4	6	23.1	7	25.9
Yale	2	7.1	0	0	0	0
기타	0	0	1	3.8	1	3.7
합계	28	100	26	100	27	100

유럽의 MR 선호도는 미주보다 약간 더 강한 편이다. 응답자의 71.4%가 MR을 선호하고, RR의 선호자는 21.4%에 불과하였다. 향후 한국 정부가 채택 하였으면 하는 표기법으로 70.4%가 MR을 지지하였으나, RR지지자는 25.9%에 불과하였다. 미주의 경우 MR와 RR의 지지율 격차가 12.5%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에, 유럽은 44.5%포인트나 되었다. MR:RR의 지지율이 약2.7:1정도로 MR이 유럽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한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월레이번(Boudewijn Walraven 2009)은 유럽에서는 학계나 도서관을 막론하고 MR의 사용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보고서(엄 2009:62-69)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음의 정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MR이 RR보다 우월한 표기법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겠지만, 로마자표기법의 첫째 수혜자는 외국인들이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만 보고 한국어와 비슷하게 읽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실제 발음과 다른 RR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잘못 발음하게 한다. MR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가기호는 영어를 제외한 구미의 많은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소수의 동음이의어는 어느 언어에서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기음 표시는 hp, ht, hk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포스트로피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모음 o와 u위의 반달점은 자판에 나와 있는 ^를 사용하면 더욱 간편할 것이다. MR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다는 주장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실제 UNESCO 한국 위원회가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에도 RR 표기의 오류가 있다. 월레이번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던킨이나 캐나다의 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3 대양주 지역

호주를 중심으로 한 대양주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대양주 지역 설문조사 결과

	Q1		Q2		Q4	
	명	%	명	%	명	%
MR	4	80.0	3	75	3	75
RR	1	20.0	1	25	1	25
Yale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5	100	4	100	4	100

표본 숫자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80%가 MR을 사용하고 있고, 75%가 MR을 공식 표기법으로 채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이반(Greg Evon 2009)은 대양주에서도 MR의 사용도가 RR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였다. 그의 조사 보고서(엄 2009:75-84)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양주 학계 및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표음 기능과 효용 범위가 RR보다 강한 MR의 사용이 우세하다. 대양주의 모든 도서관에서는 MR을 사용한다. 물론 한글 또는 한자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학술지의 경우 특정 표기법을 요구하지 않고 저자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동일한 핵심어가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핵심어 검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한국학 학자와 학생들은 두 가지 이상의 표기법에 익숙해야 한다. 이 점에서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에 비해 불편하고 불리하다.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학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신문 방송 등 언론계에서는 소식원이 제공하는 대로 불규칙하게 표기한다. RR은 부가기호를 제거함으로써 간편하기는 하나, MR에 비하여 덜 수요자 친화적(less user-friendly)이고 eo와 eu는 잘못 발음하기 쉽다. RR은 표음 기능이 부정확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혼란을 준다. 국제사회에서 지금처럼 다수의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이 통용되는 현실은 한국의 인지도, 신뢰도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명과 대학 등 기관 명칭 표기에 어떤 원칙이 없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반의 이와 같은 보고는 복수의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4 아시아 지역

아시아는 영어권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아시아 지역 설문조사 결과

	Q1		Q2		Q4	
	명	%	명	%	명	%
MR	9	34.6	7	30.4	6	26.1
RR	17	65.4	16	69.6	17	73.9
Yale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26	100	23	100	23	100

조사에 응한 23명 중 개인적으로 참여한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한유럽상공인회(EUCCK) 소속 회원들이다. 미상공인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였다. 다른 대륙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RR 선호도가 MR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응답자의 65%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RR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가 필요하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와 일본에서는 한글 및 MR로 도서 검색이 가능하다. 인도, 필리핀 등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는 MR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예외

적으로 RR로 검색되는 도서도 있다. 아시아지역의 언론사에서는 RR과 MR이 혼용되고 있는데, 주로 RR의 사용이 더 많이 관찰된다.

2.5 종합 분석 결과

이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사 결과 종합

표기법	Q1현재사용	Q2일반용도적합	Q4정부선택요망
MR	88	63	59
RR	41	46	47
Yale	6	3	3
기타	2	7	11

세 번째 질문인 MR이나 RR을 선택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Q3 MR 또는 RR 선택 이유

선택 이유	MR 선택자	RR선택자
발음의 정확성	55	19
배우기 쉽다	22	24
사용하기 편리하다	23	15
철자 환원이 정확하다	12	16
국제사회의 인지도	45	4
정부 공인 표기법	0	18
기타	15	11

RR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특정 지역

특정 직업군으로 조사된 아시아를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은 MR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70%)보다 유럽(72%) 및 대양주(80%)에서 더 두드러진다. RR의 사용자는 대륙 별로 20-22%정도에 불과하다. 직업군별로 나누어 보면 도서관에서는 100% MR을 사용하고 학자군도 67%가 MR을 사용하고 있다. RR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MR과 RR의 사용 비율은 약 3:1에 해당한다.

MR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그 주된 이유로 발음의 정확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보급률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기 쉽고 사용상 편의성도 비교적 높은 선택을 받았다. 한편 RR을 이상적인 체계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배우기 쉽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발음의 정확성과 정부의 공식방안이라는 점을 그 다음 이유로 선택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가 채택했으면 하는 체계로 MR 지지율이 49%이고, RR 지지율은 39%였다. RR이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2% 정도의 RR 사용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 수치는 RR의 강점인 편의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동안 MR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가기호에 대한 적절한 처리로 MR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면 표음력과 편의성이 결합된 이상적인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인식될 것이다.

3. 한글학회 · 현대경제연구원 수용도 조사

어문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한글학회에 의뢰한 한국어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제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발음 실태, 표기 실태 및 만족도 조사는 2010년 4~5월 중 외국인 440명(재외 220명 그리고 재한 220명)과 내국인 200명 등 총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글학회 · 현대경제연구원(2010:37-38)에서 인용한 조사 표본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8) 발음 실태 조사: 재외 및 재한 외국인 각 220명씩 (모두 440명)

언어/문자 구분	언어구분	재외 외국인	재한 외국인
영어-로마자권	영국 영어	20	20
	미국 영어	20	20
비영어 로마자권	프랑스어	20	20
	독일어	20	20
	스페인어	20	20
	동남아시아어	20	20
비로마자권	중국어	20	20
	일본어	20	20
	러시아어	20	20
	아랍어	20	20
	동남아시아어	20	20
합계		220	220

(9) 표기 실태 조사: 내국인 200명 (일반인 40명과 언어전공자 160명)

직종	(전공)언어/문자 구분		인원
일반인			40
직무종사자			20
언어전공자 및 전문가	영어-로마자권	영어	20
		불어	20
	비영어-로마자권	독일어	20
		한국어	20
	비로마자권	중국어	20
		일본어	20
		기타 아시아어	20
합계			200

한글학회 ·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조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2009

년 조사보다 표본 수가 약 다섯 배가 늘어났다.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조사가 주로 한국을 전문으로 다루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한글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표본의 약1/3이 내국인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면 2/3에 육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조사는 MR과 RR의 사용 실태와 선호도를 같은 비중으로 조사한 반면, 한글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RR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영향 평가 조사는 발음의 예측성, 한글 표기와의 대응성을 나타내는 인지도, 표기법으로서의 만족도, 대중적 수용도 등 모두 네 항목에서 이루어 졌다. 다음은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302)에서 인용한 조사 결과이다.

(10)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기준	결과
발음의 예측성	25개 로마자 표기 단어에 대한 외국인 발음의 표준 발음과의 일치하는 비율	40.2
인지도(한글표기와의 대응성)	내국인이 로마자로 표기한 25개 단어가 현행 표기법 규정과의 일치하는 비율	29.3
만족도	현행 표기법을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57.3
수용도(대중성)	국내 로마자 표기 주소와 해외 로마자표기 중요 언론매체의 한국어 로마자표기가 현행 표기법 규정과 일치하는 비율	52.1

이러한 결과를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따라 10명의 어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도출해낸 평가 지수는 다음과 같다.

(11) 항목별 가중치

(단위: %)

구분	가중치(a)	결과(b)	(a)x(b)
발음의 예측성	0.185	40.2	7.43
인지도(한글표기와의 대응성)	0.205	29.3	6.00
만족도	0.325	57.3	18.62
수용도(대중성)	0.285	52.1	14.84
평균	1		46.89

네 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는 6%를 기록한 로마자표기법과 한글 표기와의 대응성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로마자로 표기한 인명과 지명을 보고 한글로 전환 인식할 수 있는 인식도가 비교적 저조하다는 뜻이다. 또 외국인 이 로마자로 표기한 한국어 단어를 읽었을 때 한국어 발음과의 유사 정도를 평가한 발음의 예측성 또한 7.43%로 낮은 편이다. 대중의 만족도 및 수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족도는 현행 로마자표기법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외국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외국인 조사 표본의 반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MR같은 다른 표기법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만족도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표기법에 이미 익숙해 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용도란 국내 주소 표기 및 해외 언론 매체에서 한국어 로마자표기의 정확도 등을 판단한 것이다.

아무튼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조사는 가장 이상적인 로마자 표기법을 100으로 보았을 때, 현행 표기법이 46.89%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수치는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3, 303)의 요약문과 결론에서처럼 현행 로마자표기법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4. 보완 사항

2000년에 개정된 한국어 로마자표기법의 해외 보급률이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한 수용 지수 또한 47%(한글학회 조사결과)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RR의 해외 보급률이 기대보다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37년 발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MR의 견고한 전통 때문이다. 둘째,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 같은 로마자표기법의 핵심 규정 미비 등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R과 RR의 보급률 차이는 이 두 가지 표기법의 사용 연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국어의 로마자표기에 대한 국내의 수요는 최근에 와서야 급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RR의 보급 속도가 기대보다 느린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방안의 사용 기간이 MR보다 짧아서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RR이 로마자표기법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명의 표기와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을 완비하지 않고 세계인을 상대로 현행 정부안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상품을 브랜드만 보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행 표기법은 시급히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4.1 성씨 표기 규정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은 성씨 표기에 관한 규정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통용 표기와 RR에 따른 표기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반인의 저항이 심할 것을 우려해서 일 것이다. 현행 로마자표기 방법으로 한국의 5대 성씨인 김, 이, 박, 정, 최는 Gim, I, Bak, Jeong, Choe로 표기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2007년에 실시한 성씨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2007년 국립국어원 조사 성씨 표기 실태 (%)

	김	이	박	정	최
Kim	99.3	Lee	98.5	Park	95.9
Gim	0.6	Yi	1.0	Bak	1.8
Ghim	0.01	-	-	Pak	1.7
				Jung	48.6
				Jeong	37.0
				Choi	93.1
				Choe	6.5
				-	-

대한민국에 이들 다섯 성씨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이다. 이는 정씨를 제외하고 RR대로 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의 정희원(2009)이 연구 발표한 성씨 표기 제2차 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국립국어원 성씨 표기 제2차 시안(2009)

- a. 성씨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의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 이, 오, 아, 우는 각각 Yi, Oh, Ah, Wu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c.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는 G대신 K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시안은 2001년 국립국어연구원이 발표한 제1차 시안보다 예외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안이다. 왜냐하면, 제1차 시안은 각 성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를 규정에 따른 원칙 표기와 함께 같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안이 그대로 확정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왜 김, 고, 구, 강씨 등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만 Gim, Go, Gu, Gang이 아니라 Kim(99.3%), Ko, Ku, Kang으로 쓰는 현실을 인정해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 절대 다수인 98.5%가 Lee로 표기하고 있고, 박씨의 95.9%가 Park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2%도 안 되는 Yi(1%)와

Bak(1.8%)으로 쓸 것을 규정하면 왜 김씨는 Gim으로 규정하지 않는냐는 항의가 속출할 것이다. 현행 표기법의 큰 원칙을 따르게 하자니 대다수 국민들의 표기 방법과 달라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관습을 존중하자니, 기존 표기법과 달라지는 모순을 감수해야 한다.

성씨 표기 규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로마자표기법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2011년에 성씨 표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억(2011)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중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이중 표기를 허용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건의하고 있다. 즉 김, 이, 박, 최 등 대성(大姓)은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표기를 수용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은 RR대로 표기하게 한다거나, 일부 성씨는 RR을 쓰고 괄호 속에 MR이나 다른 통용 표기를 병기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여러 원칙과 예외를 허용하는 점에서 예외를 최소화한 2009년 국립국어원의 제2차 시안보다 후퇴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 때문인지 정권 교체기라는 정책 결정 타이밍의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씨 규정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언어 정책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수 언종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동일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2009년 정희원의 제2차 시안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성만 G로 표기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4.2 띄어쓰기 규정

로마자표기법에 관심이 있는 국어학자들마저도 심각한 결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띄어쓰기 규정의 미비이다.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아무리 긴 문구일지라도 그냥 붙여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남한산성입구역에는 Namhansanseon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단어를 외국인이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겠는가?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이렇게 긴 단어를 순식간에 파악

하여 방향을 잡기도 어렵다. Namhan과 Sanseong은 반드시 띄어 써야한다.

또 띄어쓰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행 로마자표기법을 해외 도서관이 채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표기법을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해외 한국학 학자들의 사용이 저조할수록 영어권 도서관에서 RR을 도서 목록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 도서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기법을 학자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학자와 도서관이 이렇듯 서로 순환 관계를 이루는 상황에서 RR이 MR의 지위를 대체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띄어쓰기 규정이 없이는 인명, 지명, 도서명 등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다. 또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검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한글의 띄어쓰기 규정에 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 문장의 띄어쓰기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또 띄어 쓰도 되고 붙여 쓰도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국 의회도서관은 MR의 띄어쓰기 규정을 매우 세밀히 정비하였다. 따라서 RR도 이 규정을 잘 검토한 다음 적절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RR의 규정도 MR만큼 복잡해지겠지만, 이는 로마자표기법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규정이다.

5. 개정 방향

5.1 자음 개정 방안

자음 표기에 있어서 MR과 RR의 가장 큰 차이는 파열음 및 파찰음에 있다. 다음은 두 표기법의 대조표이다.

(14)	ㅂ	ㅃ	ㅍ	ㅌ	ㅌ	ㅍ	ㄱ	ㅋ	ㅋ
MR	p/b	pp	p'	t/d	tt	t'	k/g	kk	k'
RR	b/p	pp	p	d/t	tt	t	g/k	kk	k

	ㅈ	ㅉ	ㅊ
MR	ch/j	tch	ch'
RR	j	jj	ch

위 두 표기법은 파열음에 p, t, k와 b, d, g를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용법은 완전히 다르다. 평음의 경우 MR은 어두에서 p, t, k를 사용하는 반면에, RR은 b, d, g를 사용한다. MR은 모음 또는 유성음 사이에서 b, d, g를 사용하고, RR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p, t, k를 사용한다. 파찰음의 경우 MR은 ch를 기본음으로 잡고, 유성음 사이에서 j를 사용한다. RR은 j를 기본음으로 하고, ch는 유기음 표기에 사용한다. 다음 예를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15)	부산	대전	대천	경주	김포
MR	Pusan	Taejŏn	Taech'ŏn	Kyŏngju	Kimpo
RR	Busan	Daejeon	Daecheon	Kyeongju	Gimpo
	덕유산	답십리	호법	제천	제주
MR	Tŏgyusan	Tapsimni	Hobŏp	Chech'ŏn	Cheju
RR	Deogyusan	Dapsimni	Hobeop	Jecheon	Jeju

로마자표기법은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현지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 로마자표기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므로, 한국어의 어두 자음을 b, d, g로 적든지, p, t, k로 적든지 큰 상관은 없다. 그러나 현지 발음과의 유사도가 높은 표기법이 그렇지 않는 표기법보다는 효용성이 높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음의 유사도 또는 예측 가능성은 로마자표기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면 과연 부산의 실제 발음은 RR로 표기한 Busan에 가까울까 아니면 MR로 표기한 Pusan에 더 가까울까?³⁾ 필자는 부산역의 간판이 지난 수십 년

3) 여기에 관한 찬반 토론은 이흥식(2011)과 엄익상(2011a)의 조선일보 기고문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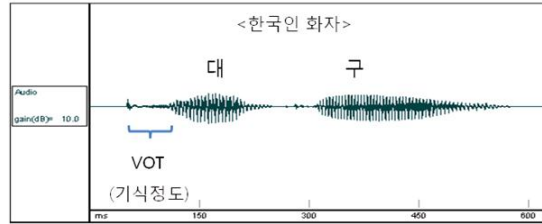
동안 Busan에서 Pusan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Busan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부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구, 대전, 광주, 경주, 김포, 제주 등 수없이 많은 지명의 표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 RR의 b, d, g, j와 MR은 p, t, k, ch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성성이다. 한국어의 어두 자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주, 김포, 제주는 모두 무성음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Pusan, Taegu, Taejon, Kwangju, Kyongju, Kimpo, Cheju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발음과 더 유사하다. 물론 영어 단어에서 두음의 유성성은 흔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두음을 유성 자음 B-, D-, G-, J-로 바꾼다고 해서 유성성이 모음 사이에서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영어 화자들은 유무성음이 변별적 기능을 하지 않는 한국어나 대부분의 중국어 화자보다는 유무성음의 차이에 훨씬 더 민감하다. 또 일본어 화자는 단어 안에서의 위치와 상관없이 유무성음을 정확히 변별하여 사용한다.

한국어의 어두 자음이 무성음이라는 사실은 실험음성학적 분석으로도 쉽게 입증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조태홍(2009:43-52)의 음성 분석 결과와 이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 한글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수록된 이석재(2010:341-355)의 음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어두 자음의 성대진동 시작시간인 VOT 값이 p, t, k로 적었을 때가 b, d, g로 적었을 때보다 한국 현실음에 훨씬 가깝게 발음된다.⁴⁾ 일반적으로 머리 자음이 유성음이면 무성음보다 VOT가 짧고, 무기음이면 유기음보다 VOT가 더 짧다. 다음은 조태홍(2009:45-46)이 실험한 한국어 화자 및 미국 영어 화자가 발음한 ‘대구’의 VO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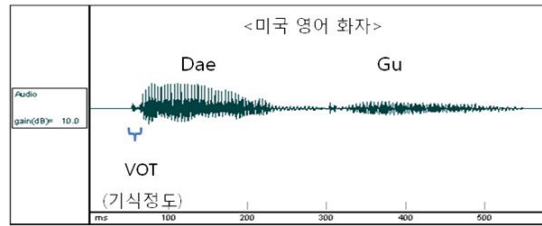
(16) 한국인 화자의 대구 발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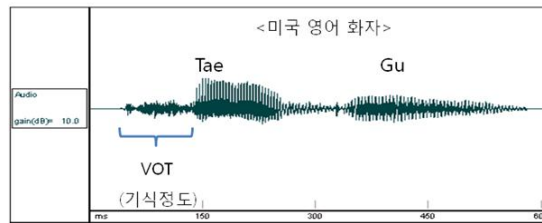
4) VOT란 Voice Onset Time을 줄인 말로 머리 자음의 폐쇄가 풀린 시점부터 모음의 진동이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한국어로는 성대진동 시작시간으로 번역된다.



(17) 미국 영어 화자의 Daegu 발음



(18) 미국 영어 화자의 Taegu 발음



위 그림은 대구를 Daegu로 발음하는 것보다 Taegu로 발음해야 한국어와 더욱 유사함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석재(2010)의 후속 연구에서도 수치로 정확히 확인된다. 아래 표에서 MR의 VOT가 한국인 발화와 더욱 가까움을 알 수 있다.

(19) 어두 초성 VOT 비교 (단위: msec / diff: difference)

	한국인	MR	diff.	RR	diff.
어두 초성 ㄱ	49	67	18	8	41
어두 초성 ㄷ	45	35	10	0	45
어두 초성 ㅂ	43	49	6	-14	57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표기법 RR이 한국어의 평음을 b, d, g로 표기하는 이유는 p, t, k를 유기음에 사용하면, 부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기 때문이다. RR 지지자들은 김포를 Kimpo로 적을 경우, [김포]가 아니라 [킴포]로 발음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김씨는 Gim이 아니라 Kim을 고집한다. [킴포] 공항에서 [푸산]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고 [킴]씨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이를 오해할 한국인은 없다. 한국에는 김포도, 푸산도 김씨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명과 지명에 ㄱ, ㄷ, ㅂ는 ㄱ, ㄷ, ㅂ에 비하여 훨씬 적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이루어 혼동을 야기하는 지명은 거의 없다. 다만 ㅈ과 ㅊ이 혼동될 수 있는 경우로 대전과 대천, 정주와 청주 등 약간의 예가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보다 큰 행정단위와 같이 사용하면 실생활에서 혼동은 피할 수 있다. 전북 정주와 충북 청주처럼 말하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 동음이의어와 동일 지명은 사실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이다(Walraven 2009:66).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호영(2010)같은 RR 지지자들은 다음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자음의 차이는 VOT 뿐만 아니라 긴장성(tension)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두 자음을 유성음으로 읽더라도 한국어 화자는 유성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무성음으로 표기했을 때 유기음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지적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로마자표기법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국어학자들은 대개 로마자표기법을 내국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로마자표기법의 1차 사용

자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말하는 Pusan [푸산]의 Park [팔크]씨가 [부산]의 [박]씨를 의미한다는 것을 내국인이 쉽게 이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성 자음을 두음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Busan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Pusan]으로 발음하는 현실이 영어나 일본어 화자에게는 더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5.2 모음 개정 방안

모음 표기에 있어서 MR과 RR의 결정적인 차이는 ‘ㄱ’과 ‘ㄴ’의 표기 방법이다. 이 두 모음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모음 표기는 거의 동일하다. ‘어’를 RR은 eo로 표기하지만, MR은 ǝ로 표기한다. ‘으’는 RR로는 eu이고, MR로는 ü이다. 다음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20)	검단	성주	정읍	금촌	음성
MR	Kōmdan	Sōngju	Chōngŭp	Kūmch'on	Ŭmsōng
RR	Geomdan	Seongju	Jeongeup	Geumchon	Eumseong

RR은 부가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우세하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성면에서는 MR이 RR보다 우세하다. 검단 신도시를 현행 표기법로 적은 Geomdan은 [지옴단] 또는 [지옴덴]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정읍과 음성의 RR 표기 Jeongeup과 Eumseong도 한 음절당 모음이 두 개씩이므로 대개 [제옹에업]이나 [에움세옹]으로 발음되기 쉽다. 이들을 MR로 표기하면 각각 Kōmdan, Chōngŭp과 Ŭmsōng이 된다. 이들이 차라리 [검단], [정읍], [음성]에 더 가깝게 들린다. RR 지지자들은 모음위의 부가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사용에도 불편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 지명을 MR로 표기하면 [곰단], [종업], [음송]으로 발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R의 부가 기호는 다른 유사 기호로 대체하거나 생

략할 수 있다. Ctrl+F10만 치면 라틴 확장 문자표에서 ð나 ũ를 쉽게 고를 수 있지만, 한글이든 워드든 상관없이 수정 모드에서 Ctrl+Shift+6를 누른 다음 o나 u를 치면 ð나 û가 쉽게 생성된다. 설령 모음 위의 반달 점을 무시하고 읽어서 [곰단], [중읍], [움송]처럼 발음한다 하더라도, [지움단], [제움에업], [에움세움]보다는 [금단], [정읍], [음성]에 가깝게 들린다. 외국인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비교해 보면 MR이 RR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실험음성학적 연구로도 뒷받침 된다. 이석재(2010)는 포만트 분포의 특징과 모음 길이 면에서 MR표기법이 RR보다 한국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태홍(2009:9, 51)도 모음 [ɨ]와 [ɨ̥]를 기준으로 할 때 RR의 정확도는 48.5%에 그치는 반면, MR의 정확도는 87%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모음 [ɨ]와 [ɨ̥]의 MR 및 RR 표기 정확도 비교

한국어 지명	RR	정확도	MR	정확도
병점	Byeongjeom	75% (15)	Byŏngjŏm	90% (18)
평택	Pyeongtaek	80% (16)	P' yŏngt'aek	75% (15)
인천	Incheon	85% (17)	Inch' ŏn	65% (13)
업	Eom	15% (3)	Ŏm	80% (16)
응봉	Eungbong	40% (8)	Ŭngbong	95% (19)
음성	Eumseong	30% (6)	Ŭmsŏng	95% (19)
금천	Geumcheon	25% (5)	Kŭmch'ŏn	95% (19)
성남	Seongnam	30% (6)	Sŏngnam	95% (19)
전북	Jeonbuk	70% (14)	Chŏnbuk	100% (20)
음	Eum	35% (7)	Ŭm	80% (16)
평균:		48.5%		87%

따라서 자음과 모음 모두 현행 표기법보다 MR의 발음 유사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은 자음은 RR이 더 정확하고 모음은 MR이 더 정확하다고 분석하였다.

6. 맺는말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한글학회 및 현대경제연구원의 로마자표기법 수용도 조사에서 현행 로마자표기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보급률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RR이 지니는 근본적인 결함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 (22) a. 성씨 표기 규정 미비
- b. 띄어쓰기 규정 미비

200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행 로마자표기법(RR)은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로마자표기법으로서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의회도서관 등 영어권 국가 도서관에서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서 목록용으로 RR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이다. 이 두 규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현행 표기법이 완전한 로마자표기법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R을 수용하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래 MR과 서로 약간 다른 자체 표기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였다. 현행 표기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한지 10여 년 만에 또 다시 바꾸는 것은 정부로서도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로마자표기법 서로 다른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내외 전문가 들이 같이 모여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MR과 RR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만을 취합하여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표기법을 만들면 개정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논쟁이나 언어 외적인 이유로 인한 로마자표기법의 잦은 개정은 사회적으로 로마자표기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정경일(2012:328)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익상(2011ab, 2012)이 최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하루 빨리 수정·보완되어 국내외에 보급되어야 한다. 성씨 표기도 못하고 띄어 쓸 수도 없는 표기법을 무작정 계속 고집하는 한 RR의 해외 보급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성씨 표기와 띄어쓰기 규정이 없는 한 현행 RR이 MR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제 사회에서 복수의 표기법이 통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정경일의 우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RR의 규정 미비 및 국민의 소극적 사용이 한국의 로마자표기법이 중국의 한어병음과 다른 점이다. 중국의 경우 모든 인명과 지명을 1958년에 제정한 한어병음방안으로 적게 규정하였고, 13억 이상의 전 국민이 예외 없이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을 꾸준히 사용해 왔다. 그 결과 2009년에는 대만도 한어병음을 공식 채택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서구 사회에서 100년 이상 사용해온 Wade-Giles 표기법에서 한어병음으로 공식 전환하게 되었다(엄익상 2012:335 참조). 이로써 한어병음은 제정 반세기만에 전 세계 표준 중국어 로마자표기법의 지위를 차지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참고문헌

- 엄익상, 『한글 로마자표기법 해외 사용실태 조사분석 보고서』 서울: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 엄익상, 「외국인들 ‘Cheju’ 가는데 웬 ‘Jeju’행 표?」 『조선일보』 7월 4일, A21면, 2011a.
- 엄익상, 「로마자표기법: 국내표준과 국제관례」 『도겸 이충양선생 정년기념 논문집』 Pp. 303-310, 2011b.
- 엄익상, 「한·중 로마자표기법의 국제 표준 문제」 『중국어 음운론과 응용』 서울: 한국문화사, 2012.
- 이상익, 한글 성씨 로마자 표기 연구(미출판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이석재, 「한글 로마자 표기법 MR과 RR 방식에 따른 외국인 발화 음성 분석」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Pp. 341-472, 2010.
- 이호영, 「한글 로마자 표기법 MR과 RR 방식에 따른 외국인 발화 음성 분석」에 대한 논평」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보고서 검토 의견』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단 평가회의용 내부 보고서) 11월 24일, 2010.
- 이홍식, 「‘ㄴ’ 표기할 때 B도 쓰고 P도 쓰자고?」 『조선일보』 7월 4일, A21면, 2011.
- 정경일, 『국어 로마자표기의 오늘과 내일』 서울: 역락, 2012.
- 정희원, 「성씨 표기안 제정 추진 경과 및 표기 시안」 『성씨 로마자 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집, 6월 25일(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09.
- 조태홍, 「국립국어원 로마자표기법과 McCune-Reischauer 로마자표기법의 음성 유사도 비교」. 엄익상, Pp. 43-52, 2009.
-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서울: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 2010.
- Buswell, Robert. “Use of Korean Romanization Systems in North American Academe.” 엄익상 Pp. 55-60, 2009.

- Evon, Gregory.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Romanization in Australia and Oceania." *엄익상* Pp. 75-84, 2009.
- Walraven, Boudewijn. "Transcriptions of the Korean Language: Views from Europe (and Elsewhere)." *엄익상* Pp. 62-68, 2009.

<Abstract>

Korean Romanization System: The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Eom Iksang

This article summarizes in brief the results of surveys on Korean Romanization systems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unci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an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0. The acceptance rate in 2009 ranges from 20-22.4%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overall acceptance rate was reported as 46.89% in 2010. This article points out the reasons for the low acceptance rates of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Romanization. It further suggests how it ought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be the international norm. Lack of the rules for surnames and spacing is two of the most fatal deficiency of the current system that the author points out in this article. He suggests also that the voicing of consonantal onset should be reflected properly and the Romanization of high and mid central vowels should be revised to be pronounced more accurately by non-Korean speakers although Romanization does not have to be phonetically transcriptive.

Key Words : McCune-Reischauer, Revised Romanization, Yale, Korean Romanization

투 고 일 : 2013. 1. 8.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